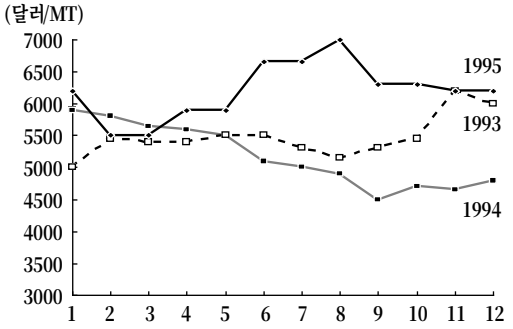
주석, 대우 참여로 경쟁체제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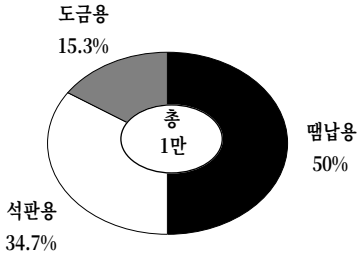
95년 1만1000톤 · 580억원 시장 … 전자부품용 수요둔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석시장이 내수침체와 국제가격 상승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6년들어 대우의 신규참여로 과당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석시장은 연간 총 58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수입은 LG금속과 삼성물산을 비롯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우가 96년1월 20톤을 동남아에서 수입해오면서 점차 물량을 확대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의 신규참여에 따라 과당경쟁이 발생, 국제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는 낮게 책

주석 수입시세 추이



주석의 수요구성비(1995)



정해야 하는 가격불균형 현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95년 주석 수입량은 1만1000톤으로 94년 1만500톤에 비해 4.5% 증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주석 수요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부품공장들의 동남아 이전에 따라 Solder(땜납)용 수요가 감소하고, 도금 및 음료수캔 수요도 정체되는 등 점차 하향추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연간 총 1만1000톤중 말레이지아산 6000톤 56%, 인도네시아 2500톤, 베트남 1000톤, 중국과 러시아산도 소량 수입되고 있다.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산이 전체 수입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95년 기업별 수입을 보면, LG금속이 4200톤, 삼성물산 3600톤, 쌍용 1500톤, 백상산업 1100톤, 효성물산이 600톤을 수입 ·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금속은 동양석판과 동부제강 등 석판제조기업에 주로 판매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대부분 삼성전자 등 전자업계와 포스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희성금속이 월 50여톤을 수입해 계열회사인 국제전선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주석의 용도별 수요현황을 보면, 땜납용 연간 5500톤, 석판제조용 3800톤, 도금용 1700톤으로 나타났다.
주석의 국제가는 96년2월 현재 톤당 6150달러로 95년8월 최고가였던 톤당 7000달러에 비해 1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석 생산국모임인 ATPC가 95년9월 수출쿼터제를 전격 해제함에 따라 국내 수입물량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2월16일 현재 주석의 수입가격은 말레이시아산 순도 99.85%, CIF 인도조건으로 톤당 6277~6287달러에 형성됐다. 이 가격은 95년말 톤당 6312~6322달러에 비해 25~45달러가 하락한 것이고 95년 11월초의 6400달러에 비해서는 최고 123달러가 하락한 것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의 1월중 현물 평균시세는 톤당 6269달러로 95년12월중 현물평균시세6290

달러에 비해 21달러가 하락했다.
국제 주석시세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기가 부진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하반기부터 주석수출국들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돼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투기자본들이 주석을 투자유망 대상품목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95년9월 볼리비아에서 결정된 13차 세계 주석생산국회의에서 주석생산국 카르텔인 ATPC(Association of Tin Producing Countries)를 96년6월까지 존속시키기로 잠정결정했으나 96년들어 가격카르텔의 해체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석 수요기업들이 국제시세외에 운송비 및 수수료조로 지불하는 프리미엄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산의 프리미엄도 톤당 60~80달러로 안정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3/11>